

정책-유해물질 관리 공약

(Policy-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Commitment)

2019. 06. 제정

2020. 07. 개정

2021. 05. 개정

LG생활건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2017년 소비자안심센터를 출범하였으며, 산하에 안전성 평가 전담조직인 안전성 평가부문(안전성연구Lab.과 유해물질분석Lab.)을 운영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유해물질 검증과 인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기획부터, 원료 및 부자재 선정, 생산, 운송, 폐기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자체적인 절차와 유해물질 운영 가이드 지침을 만들어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1. 유해물질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LG생활건강은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목적을 이해하고 완제품 혹은 반제품 내 포함된 농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내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해성 평가 및 유해물질 검증 체계 강화

LG생활건강의 모든 원료는 국가별 법규에서 지정 또는 제한하는 범위 등 규제 검토를 거친 뒤 (제품군별 법규에서 지정 또는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국가별 규제 검토를 거친 뒤) 인체 위해성 평가 및 유해물질 검증을 실시하고, 내부관리 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제품에 처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영 유아 제품, 흡입 가능한 제품 및 인체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원료들이 안전한 영역 내에서 제품에 처방되는지 검증하고 있

으며, 개발된 반제품도 유해물질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공장에서 매년 첫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국내외 어떤 법규보다 엄격한 내부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유해물질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당사 제품의 안전성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최신 규제 확인을 목적으로 Risk Management Monitoring 시스템(RPA)을 도입하여 매주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당사 제품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포함한 유사 동종 업계 전 제품과 제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제품 포장재의 구성 성분 및 제품의 사용 형태, 제형, 용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련 새로운 정보는 검토하여 자사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국제적 기준 및 이니셔티브 지지

REACH 부속서 XVII 제한 물질 및 고위험성 물질(SVHC) 후보 리스트 물질의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LG 생활건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처와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유해물질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와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의 집중 관리를 통해, 2025년까지 현재 수준의 50% 이하로 감축 토록 하겠으며, 감축 방법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신제품 확대,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운영 제품의 원료 대체 및 제품 단종을 통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LG생활건강은 원료, 부자재,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중 오염되는 유해물질까지 정기적으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해서는 대체 물질 발굴, 레시피 변경 등을 통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배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유해물질 규제 및 허용 기준을 근거로 20가지 유해성분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도 주요국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생식독성의 우려가 있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과 내분비

장애물질 리스트에 등재된 파라벤류(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이소프로필, 이소부틸)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Butylphenyl methylpropional (BPMP)는 Lialil로 알려진 합성 향료성분으로, 2020년 5월 개정된 EU의 화장품 CLP규정에서 R.1B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우려될 정도의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물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따라 향료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사용 중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 파라벤류는 방부 목적으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지만 SIN list나 UN의 EDC 리스트 등 내분비장애물질 리스트에 주의성분으로 등재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아이소프로필파라벤, 아이소부틸파라벤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